



맞춤형 케어푸드로 건강관리 수요 대응

전북자치도, 총 1875억원 투입... 전략적 육성 추진
마이크로바이옴 · R&D · 기업 지원 · 관광 연계
고령화 · 질병 예방,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북특별자치도가 초고령화 시대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맞춤형 케어푸드는 단순한 기능성 식품을 넘어 개인의 유전정보, 건강상태, 식습관 등을 종합 분석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말한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22년 약 5,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3% 성장했으며, 연평균 8% 이상 확대되고 있다.

세계 시장도 2023년 236억 달러에서 2028년 3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사회적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R&D 강화'를 통한 미래농산업 전환이라는 대통령 공약과도 맞물려 있다.

국가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우는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비전은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벨트 조성'이다.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소를 신규 육성하고, 관련 기업수를 현재 16개사(19개 공장)에서 40개사로, 신규 고용 인원은 1,500명에서 2,3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총 1,875억원을 투입해 3대 전략, 7대 중점과제, 14개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첫째, R&D 기반 강화다. 식품과 개인

건강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데이터 화해 산업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맞춤형 식이설계 플랫폼 개발, 미생물 공급망 구축, 맞춤형 식품 상용화, 임상실증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등에 117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이다. 창업부터 제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조성, 스마트 생산기술 개발, 제품개발 및 실증지원, 사업화 지원센터 설립 등에 1,718억 원을 투입한다.

셋째, 지역연계 활성화다. 지역 특화 식품소재 개발과 치유관광 연계를 통해 산업과 관광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케어푸드 기술고도화 R&D 지원과 차별화된 치유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40억 원이 투자된다.

전북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의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1만여 명 규모의 장내미생물뱅크, 50만 건 이상의 미생물 실물자원, 전국 최초의 기능성식품 임상지원센터, 식품전문 산업단지, 다수의 식품지원기관 등이 집적돼 있다. 이를 통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식품 효능 검증과 실증 연구가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질병 예방이라는 사회문제 해결과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과학 기반 인프라와 전주기 기업 지원을 통해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난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 이석규 애국지사회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만세 삼창을 외치고 있다.

“대한독립만세”... 80년 전 함성 울려 퍼지다

전북자치도,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

독립유공자 예우 · 헌담으로 광복 의미 되새겨

전주 · 완주 등 도내 시 · 군서도 기념행사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도내의 주요 내빈과 국군장병, 보훈단체 회원, 도민 등 약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축식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감격과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100년을 향한 전북의 도약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경축식에 앞서 독립유공자 후손 접견이 진행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광복회 전북지부장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장에서는 호남지역 유일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선생이 소개됐으며, 김관영 도지사는 무대 위에서 이석규 선생에게 꽃다발과 위로물품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석규 선생은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시절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봉기를 준비하며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다. 그의 숭고한 헌신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경축공연은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

의 부채춤으로 시작했다. 화려한 부채 물결과 경쾌한 선율이 어우러져 광복의 기쁨과 희망찬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으며, 군산푸른소리합창단이 '내 나라 우리 땅'과 '광복절 노래'를 제35보병사단 군악대의 반주에 맞춰 합창했다. 관객과 합창단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80년 전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을 재현했다.

마지막 순서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의 선창에 맞춰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울려 퍼진 만세삼창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축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부대행사로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어린이집 주관 광복절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작 전시가 열려 태극기, 독립운동가 등을 주제로 한 14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또한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에서는 한화·분향·묵념이 이어졌으며, 기관장·유족·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선열들의 회생을 기렸다.

김관영 도지사는 "광복은 선열들의 피와 땀,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 위

에 이룩한 역사"라며 "80년 전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도전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경제·문화 강국으로 성장시켰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전과 변화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시·군에서도 광복절 관련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보훈누리공원 내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에서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는 참배행사를 거행했다.

정읍시는 이날 연지아트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렸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역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기념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광복의 역사적 가치와 선열들의 희생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완주군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천면에 소재한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특히 기념관에서는 '기억의 80걸음, 마을에 새긴 80년' 특별전과 함께 현관 제막식이 열려 광복 80년의 발자취와 완주독립운동추모공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 익산, 고창 등에서도 광복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만호 기자

도, 지역현안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총 313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등 총 64개 사업에 313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현안사업에는 202억원이 배정됐으며, 주요 사업은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25억원) △전주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9억원) △익산 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8억원) △지방도720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8억원) △김제 그린우드기구·육산아파트 간 중로 개설공사(10억원) 등이다.

재난안전사업에는 111억원이 투입되며, △죽림교 재가설사업(8억원) △지방도 절개지 정비(10억원) △전주 서천교 내진 및 보수보강공사(6억원) △진안고원 제설·제빙 도로 안전관리창고 신축(6억원) △고창 수동사포지구 침수예방 사업(6억원) 등이 담겼다.

앞서 전북도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특별한 전북시대' 실현과 도민 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속 건의해 왔다.

그 결과 행안부는 올해 4월과 7월 폭염대책비 50억1,000만원과 7월 16~19일 호우 피해 응급복구비 10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등 도민 안전과 재해 복구를 뒷받쳤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한국관광 100선 선정

부인

반산반도국립공원

2025~2026 선정

개암사

직소폭포

솔섬

수성당